metro
메트로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제2650호

'소시' 대만 싱가포르서 1위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제2650호 www.metroseoul.co.kr

WBC대표팀 '4강 다시한번'

내 말 알아듣는 '똑똑한 자동차'

블루투스로 아이폰5를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연결한 나열단 씨. 안전벨트를 한 뒤 "시동"이라고 말하자 이내 엔진이 움직인다. 좌회전을 하기 전 "왼쪽 깜빡이"라고 말했더니 왼쪽 깜빡이(방향지시등)에 불이 들어왔다. 10분쯤 운전했더니 슬슬 지루해진 나 씨. 이번엔 "음악"이라고 말하자 즐겨 듣는 재즈가 흘러나왔다. 갑자기 회사 상사에게 보고할 프로젝트가 생각난 나 씨는 "통화"라고 명령했고 곧 세 전화가 연결되자 "거래처와 오후 3시에 미팅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 나 씨는 "주차"라고 외친 뒤 차가 자동으로 주차하는 사이 가방과 지갑을 챙기고 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현대車 CES에서 음성 인식 기술 적용 화제
'귀 달린' LG에어컨 출시 꿈의 디지털 활짝

음성인식 기술이 일상을 파고 들고 있다. 내비게이션, 휴대전화에서 시작한 음성인식 기술이 자동차, 에어컨 등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소비자가전쇼(CES)에서 현대차는 애플의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와 연동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말만 하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운전자가 말로 명령하면 음성으로 알려주고 직접 실행도 할 수 있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

LG전자는 할미 전 사람 말을 알아듣는 휘센 스타일 에어컨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에어컨 본체에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 최대 5m 거리에서도 리모컨 없이 에어컨을 동작시킬 수 있다.

"전원 켜" "온도 내려" "바람 줄여" "공기 청정"이라고 말하면 기능을 수행한다. 이 회사는 앞서 음성인식 기능을 가진 TV와 세탁기도 내놓았다.

자동차, TV, 에어컨 등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에 음성인식 기술이 쓰이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제품이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즉, IT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자판에서 음성 입력으로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음성 인식 기술 발달과 빅데이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확률도 커지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대표적인 게 음성으로 작동하는 본질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시 깜빡이를 넣을 때 "왼쪽 깜빡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운전대 옆에 있는 컨트롤러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편할 수 있다. 에어컨에 대고 "온도 내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게 쉬울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식률 향상에도 여전히 체감 인식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시리 한 해도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한국어 버전의 경우 실소를 금치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시리에 "메트로"라고 말하면 "메스트로와 일치하는 곳을 찾았다"며 LG전자 '베스트샵'의 위치를 알려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현대차 프리미엄 콘셉트카 제네시스 HCD-14 공개 현대자동차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개막한 2013 북미국제오토쇼(NAIAS·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콘셉트카 'HCD-14'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자 취재진들이 앞다퉈 사진을 찍고 있다. 제네시스 후속 모델인 HCD-14는 후륜 구동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루프에서 트렁크까지 과감하게 이어지는 쿠페형 디자인에 실용성을 갖춘 4도어 패스트백 스타일의 세단이다. /AP·AFP 연합뉴스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설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확정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았다"며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은 부처 변경 최소화, 경제 부흥, 국민 안전 등 세가지다.

부처 변경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2개 부 신설에 그쳤다. 독립 부처가 예상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은 일부 업무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분을 가져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전문성을 강화했다.

인수위는 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네가지 안지키면 '13월의 쪽박'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허위작성 가산세 물어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잘 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속된 말로 '월급을 토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과다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덜 낸 세금의 10% 또는 부정 과소의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내야 한다.

◆ **소득 기준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특히 부양가족 명의 부동산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때도 양도자나 퇴직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 2인 이상 근로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단 6세 이하 직계비속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1인에만 해당한다.

◆ **주택자금 부당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하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서 발생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역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기부금 부당공제** = 국세청은 기부금 공제자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한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1000명 중 한 명꼴로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해 적정 여부를 가린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백신프로그램 절반이 불량

42%가 악성코드 못잡아

시중에 유통되는 백신 프로그램 10개 중 4개는 악성코드에 손도 못 대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유통되는 백신 프로그램 168종(유료 143종 무료 25종)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1.6%에 해당하는 70종이 악성코드 탐지 치료 기능이 전혀 없는 불량 백신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성능 미달 백신 30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문서로 통보하고 개선 후 회신을 요청했다.

아울러 악성코드 샘플 3000개 중 3분의 2 이상을 탐지 치료하는 등 기준에 부합한 우수 백신 프로그램 11종을 선정했다.

이번에 뽑힌 우수 백신은 내주치의닥터(KT), 네이버백신(NHN), 노애드2+(미리자웍스), 바이러스제이서 8.0(SGA), 바이로봇 Internet Security 2011(하우리), 알약(이스트소프트), B인터넷클린(SK브로드밴드), nProtect AVS 3.0(잉카인터넷), U+ 인터넷 V3(LGU+), V3 365 클리닉(안랩), V3 Lite(안랩) 등 10개사 11종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정월 감식 15일 오전 불이 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서울소방 화재조사원들이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꽝" 소리와 함께 버스 38대 불타… 방화 가능성 조사

1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버스차고지에서 일어난 화재로 버스 85대 중 38대가 불에 탔다.

이 사고로 강서구에서 영등포 여의도 등지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16일에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3시12분께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버스 30대가 전소하고 8대는 일부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버스와 영인운수 복지동 3층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타 재산 피해가 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 2대에 갑자기 불이 붙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CCTV 분석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평소 5~15분 간격으로 운행되던 650, 662, 6628, 663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10~30분으로 늦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서와 양천구 등 인근 공영차고지의 9개 버스업체로부터 29대를 투입해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대학 94% 등록금 동결·인하

다음달 등록금 납부 기간을 앞두고 대학의 94%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할 전망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3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 전체 대학·전문대 339곳 중 93.5%인 317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의 경우 Ⅱ유형 참여 대학 중 학비 동결·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윤희기자

서초 5492 vs 강남 124

금연구역 흡연 단속건수 지역·장소별 큰 격차

서울 시내에서 금연구역 흡연 적발 건수가 지역별·장소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의 흡연 과태료 부과가 전체 중 87%가량을 차지했고 용산·강남·송파·관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구로, 동작·도봉·성북·성동, 은평의 경우 단속 실적이 없었다.

심지어 강남대로를 사이에 둔 서초구와 강남구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각각 5492건과 124건으로 현격한 차이가 났다.

단속 인원도 서초구는 18명이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강남구는 2명에 불과하다. 단속 시간도 각각 13시간, 3시간으로 다르다.

이에 대해 강남대로에서 자영업을 하는 정모(37)씨는 "강남대로에서도 서초구 쪽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데다 길 건너 강남구는 과태료가 10만원, 서초구는 5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시 관리공원 20곳,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39곳에서 지난해 1030명이 흡연하다 적발됐다.

버스정류장 흡연이 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심광장은 344명, 공원 77명으로 나타났다.

서울광장의 경우 지난해 1월에 17명이 적발됐지만 12월에는 23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또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지난해 3월 64명에서 12월에는 5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청계광장은 같은 기간 11명에서 1명으로 급감해 격차를 보였다.

/배동호기자 slevon@metroseoul.co.kr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설 연휴 열차승차권 예매가 실시된 15일 서울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16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예매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온라인게임 캐시 90% 환불

서비스 장애땐 '중단시간의 3배' 보상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장애 시 3배의 보상 시간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

표준약관은 청소년(18세 미만)이 온라인게임 이용 신청을 하거나 아이템 구매 등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회사 책임으로 사전 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가 1일 4시간 이상 연속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 시간을 무료로 연장토록 했다.

서버 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에 알린 경우에도 그 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만큼 무료 연장해야 한다. 이용 회원은 계정, 아이템, 캐릭터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나 타인의 정보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금지된다.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기한은 서비스 내용이 광고 내용 등과 다르면 구매일이나 유료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다.

회원이 청약을 철회하면 유료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정지하고 영업일 3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회원이 구매한 캐시(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 화폐) 환불을 요청하면 남은 금액의 10% 이내(잔액이 1만원 이내면 일정 금액)를 공제하고 돌려준다.

/박상준기자 jun@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4> 글·그림 박상철

중랑천 등 6곳 낚시 금지구역 추가… 위반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7월부터 한강 정릉천 등 6곳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성수대교와 성산대교 일부 구간 2곳은 금지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6곳을 추가로 지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이촌1지역, 뚝섬2·3지역, 망원1·2지역, 난지1지역 등이다.

한편 뚝섬 성수동 성덕정 나들목~성수대교 하류 400m 지점 구간과 망원 성산대교 상류 400m 지점~성산대교 구간은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해제구역에서도 낚싯대는 3대까지만 허용되며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낚시 행위, 어로 포획 행위, 떡밥을 이용한 낚시는 금지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연 36%대 수익률 … 어디서???

2013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중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춰지는 것과 3억원 초과 소득세율 38%의 기준이 신설되는 것이다. 또한 예금금리가 2%대라는 전망에 따르면 은행에 1억 정도 예치해도 월16만원 전후의 이자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졌다. 따라서 발 빠르게 대응 투자처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수산영어조합법인(이하 현대수산)은 전복치패/양식, 광어양식, 해삼가공업을 영위하는 종합수산회사이다. 이번 현대수산에서는 조합의 성장을 위하여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 조합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2,000만원 이상 출자한 자를 준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출자한 금원의 최대 36%를 배당할 계획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원하시 원금도 상환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1수조를 계약자 명의로 명시해 주고 있어 안전하게 출자할 수 있다.

계약금액은 신청금 100만원, 선착순 입금 순이며 100명 한정으로 마감된다. 신규투자로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신청금 입금 후 발 빠르게 본사로 방문하여 읽어보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금은 신협은행 140-009-874152 현대수산영어조합법인으로 입금하면 된다.

문의 : 02) 3453 – 3622

'대선 재검표' 국회 청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이 15일 18대 대선 개표에 대해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청원서를 냈다.

이날 이 모임 소속 회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 과정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개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선자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선거와 개표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요기자

선행학습 금지법 만든다

"교과서 밖 시험 내면 제재"…교과부, 대입 간소화 등 업무보고

앞으로 초·중·고교생 시험에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낼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행학습 금지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교과서 밖 시험 출제 제재 법제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선행학습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초·중·고교생의 시험과 수업에서 선행학습 실시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현직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선행학습은 학교 정규 교과과정보다 한 학기 혹은 한 학년 앞선 내용을 학습하는 형태를 이르는 말로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다.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사설 학원은 '학파라치(학원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해 관리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대학 입시 제도를 학생부 성적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는 수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로 간소화하는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당시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유리기자 grass136@metroseoul.co.kr

'천사 날개' 단 MB 15일 오후 충북 청원군 청남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길' 테이프 커팅을 마친 뒤 '천사 날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 종 혁
광고국장 직대	김 현 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0-2100
독 자 센 터	02)721-9862

2009년 1월 31일 등간 2005.3.3일 등록번호 서울아 00000

공화, 국가채무한도 증액 번번이 거부하고…

총기규제안엔 탄핵까지 들먹이며 으름장

울고 싶은 오바마

오는 21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과 새 총기 규제안 처리를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공화당이 채무한도 증액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타내려는 것이며, 미국 정부의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새해 벽두 '재정절벽' 협상에서 부자 증세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와 국가 채무 법정 한도를 재조정하는 협상은 2개월 뒤로 미뤄둔 상태다.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은 16조4000억 달러다. 지난달 말 이미 한도를 넘겨 재무부가 특별 조치 등을 통해 2000억 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했으며 이마저 이르면 다음달 중순 동날 전망이다.

새 총기규제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공화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새 총기 규제안은 총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예외 없는 구입자 신원 확인, 공격용 총기의 제조 및 판매 금지, 10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소유 희망자의 정신 감정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화당 의원 다수는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사건 등에 대해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법제화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 강화는 잘못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스티브 스톡맨(공화) 의원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 총기 규제안을 처리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참사 한 달… 멈추지 않는 슬픔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한 달을 맞아 14일 열린 기자회견 도중 희생자 유족들이 숨진 어린이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터뜨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콜라 마시면 비만 우려" 코카콜라, 첫 공익광고

세계 최대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가 콜라 등 탄산음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선보였다.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MSNBC, CNN에 방영된 이번 광고는 "모든 사람을 걱정시키는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자"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음료 회사가 탄산음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를 방영한 것은 코카콜라가 처음이라고 AP는 전했다. /조선미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스크림 가면 쓴 강도 잇따라 출몰
- 中 여성 공무원 85억 부동산 축재

KOSPI	1/9	1/10	1/11	1/14	1/15
	1991.81	2005.88	1996.67	2017.98	1983.74 (-23.30)

KOSDAQ	1/9	1/10	1/11	1/14	1/15
	511.94	514.48	515.42	512.44	508.02 (-5.42)

해외 지수	
Nikkei (일본)	10879.08 (+77.51)
Hang Seng (홍콩)	23381.51 (-31.75)
Shanghai (중국)	2325.68 (+13.94)
Dow Jones (미국)	13507.32 (+18.89)

EXCHANGE RATE	
달러	1057.00
엔(100)	1189.38
유로	1413.10
위안	170.07

저성장이 앗아간 일자리 18만개

지난해 잠재수준 달성 못해 1%당 9만개 증발…올해 고용 더 위축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가 18만 개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고용시장도 위축돼 구직난이 고령층과 여성, 비정규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2.0% 성장했다. 애초 예상했던 3.7%에서 급락했다. 경제 성장이 잠재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성장으로 생기는 새 일자리가 대거 증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2011년 경제성장률 1%포인트당 민간 취업자 증가는 7만~9만 명이다.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금융위기 같은 거시 충격을 제하면 성장률 1%포인트당 취업자는 8만9000명에 달한다. 잠재 능력만큼 경제 성장(4.0%)을 했다면 지난해 성장 2%포인트에 해당하는 총 17만9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겼을 수도 있다.

또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겨난 45만 개 일자리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새로 고용된 인원은 20만 명에 그쳤다고 추산했다. 나머지 25만 개는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일자리 찾기에 내몰린 '생계형'이 더 두드러진 의미다.

한은은 올해 2.8%의 낮은 성장률을 예상했다. 하방위험(더 내려갈 가능성)은 더 크다. 이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일자리 고통이 청년을 넘어 고령층, 여성, 베이비붐 세대, 비정규직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석기자 lazyhan@metroseoul.co.kr

스캔문서 공유 쉬워졌네
한국HP는 15일 기업용 복합기 신제품 2종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종이 문서를 간편하게 스캔해 각 부서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한국HP 제공

'하우스푸어 해법' 가닥 채권-채무자 손실 분담

'하우스푸어 해법'이 채권자와 채무자 손실을 서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한다. 이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대책은 투자자 책임 원칙, 하우스리스(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융기관들이 하우스푸어의 지분 매각 전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채무자 역시 할인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나눠서 진다.

또 금융위는 임대인이 대출받아야 한다는 거부감을 줄이려고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보험사 사회공헌 공시' 금감원, 하반기에 실시

앞으로는 보험사의 사회공헌활동이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2013회계연도 3분기(10~12월)부터 사회공헌 실적을 경영공시에 포함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사회공헌 실적을 각 사는 개별공시, 협회는 비교공시하도록 했다"며 "소비자가 회사별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네임앤드셰임(Name & Shame) 제도처럼 회사 평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스피커의 변신 '귀보다 눈 먼저 끌리네' 15일 롯데백화점은 전시, 도시락, 식탁 등의 모양으로 디자인한 이색적인 스피커를 공개했다. 여성 고객들이 이색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웹툰 키운 네이버, 웹소설 띄운다

장르소설로 서비스 시작 '카카오 소설'도 곧 선봬

웹툰으로 고사 직전의 만화 시장을 살린 네이버가 15일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SF, 무협, 로맨스와 같은 15종의 장르 소설로 시작하지만 가능성이 확인되면 일반 소설로도 영역을 확장할 전망이다.

검색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15일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 웹소설'을 선보였다.

네이버 웹소설은 작가들이 네이버에 자신의 소설을 연재할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기존 장르 소설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급감하자 마련된 측면이 크다. 실제 네이버는 틈틈 코너를 통해 노블레스의 손제호 등 무명 작가를 스타 만화작가로 배출했다.

운영 방식은 웹툰과 비슷하다. 요일별 웹소설 코너를 도입,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작품을 업데이트한다. 네이버는 작가에게 고료를 지급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신인 작가 발굴에도 나선다. 누구나 장르 소설을 창작해 올릴 수 있는 '챌린지 리그'를 운영해 이용자가 직접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평가받도록 한다.

한성숙 네이버 서비스 본부장은 "웹툰에서 수백 명의 전문 작가가 탄생했듯이 웹소설에서도 더 많은 장르 소설 작가가 배출되길 바란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일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은 물론 영화, 음악으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 역시 비슷한 서비스 플랫폼을 3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는 자사가 직접 제작한 툴을 이용해 소설, 수필 등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지'를 공개한 바 있다. NHN 출신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친정을 상대로 콘텐츠 플랫폼 대결을 하는 셈이다. /박상준기자 zoo@

'인터넷+IPTV' 뭉치면 싸다?

초고속인터넷+IPTV'와 같은 결합 상품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이동통신 3사와 유선방송 사업자의 결합 상품 이용 요금을 조사해보니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TV를 보면 약정 할인율은 단품 이용 가격의 23.3~49.6%였다. 그러나 기간 약정을 뺀 상품만 결합해 구입하면 할인율은 3.6~16.7%에 불과했다.

통신-유선 결합상품들 실제 할인율 3%대 불과

소비자연맹은 "결합 상품의 할인은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결합보다는 상당 부분 기간 약정에 따른 할인 효과"라고 지적했다.

통신 결합 상품 가격 차이도 최대 20%에 달했다. 3년 약정 시 요금을 비교해보면 최저 3만2800원에서 최고 3만9600원으로 최대 20.4%의 격차를 보인다.

소비자연맹은 "KT가 대체로 할인금액이나 할인율이 높아 보이지만 최종적인 이용 요금은 LGU+가 대체로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 결합 상품 가입 세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지만 대부분 장기 기간 사용을 약정하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박상준기자

식비의 양극화

소득별 엥겔지수 보니 저소득 23% 사상 최고 평균 15% 수준과 큰차

식료품 인상으로 먹는 데 드는 돈이 불어나면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배는 족족 먹을거리 구매에 쓸디보니 삶의 질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3분기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엥겔지수)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겨울 식탁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체감 생활고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15일 '연초 식탁물가 급등과 서민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가구의 소득수준별 식료품비 지출비중을 추산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엥겔지수가 23.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배추값이 최근 한 달 간 70% 넘게 오르는 등 농축산물 가격이 급격한 점을 고려하면 식료품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연구원은 "하위 20% 계층과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15.5%)의 차이 역시 7.9%포인트로 사상 최대"라며 "이는 양극화 현상을 시사하는 것인 만큼 신선식품의 가격 급등을 막으려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훈기자 ssn@metroseoul.co.kr

저금리에 뜨는 '물가연동국채' 투자

추가 이자수익 올리고 분리과세 가능해 '절세' 현대증권서 입찰 대행

주식 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물가연동국채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 구매력을 보존해주고 추가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권이다. 정부가 발행해 신용도가 높고 10년 만기로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해 절세 효과가 높아 저금리 시대에 적절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개정세법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분리과세 대상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허용 예정이다. 현재 판매하는 물가채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에 따라 채권의 원금이 증가하고, 증가된 원금의 표면금리에 배당되는 이자를 지급해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 예로 현재 물가연동국채 '11-4 를 0.50% 금리로 1억원을 매수해 만기 보유했을 때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 오르면 원금과 이자 합이 약 1억3200만원으로 불어난다. 투자자는 3200만원 정도 수익금 중 원금 증가분 약 18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물가 상승으로 인한 채권 원금 증가분은 비과세 소득). 자연히 이자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최근 2012개정세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물가연동국채부터 물가 상승분에도 과세를 할 예정이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가연동국채가 과세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 개인투자자들도 물가연동국채를 직접 살 수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가 PD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 단위금액을 최소 10만원(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현대증권은 국고채전문딜러(PD)로서 입찰대행 서비스를 매달 실시하고 있다. 현대증권 채권마케팅부 김승환 부장은 "앞으로 물가연동국채 투자는 세제 혜택 효과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물론 물가 상승률에 원금이 연동되기 때문에 물가 하락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1965년 통계 작성 후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적은 없다.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입찰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현대증권 지점이나 고객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상기자

시빅 유로' 잘 빠졌네 15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혼다 KCC모터스 강북전시장에서 모델들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한 매력의 시빅 유로를 선보이고 있다. 시빅 유로는 혼다코리아 첫 유럽 생산 모델로 스포츠 해치백 스타일을 채택했다. /신화준기자

'폰파라치' 일주일째 포상 사례 없어

시행 1주일 지난 이동통신업계의 '온라인 신고 포상제'가 별 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15일 이동통신업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지난 7일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여 건이고 위반 사실이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이른바 '폰파라치'라고 불리는 온라인 신고 포상제는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상준기자

OD Musical Company, CJ E&M present
예술의전당에서 지킬앤하이드를 만나다!
최고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단 5주간의 특별공연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스페셜 타임 세일!
1월16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예매 시 A,B석에 한해 40% 할인!
*2013년 1월 16일~1월31일 공연 A,B석 잔여석에 한해 할인 적용
*예매 시 "스페셜 타임 세일" 권종 선택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13년 1월 8일~2월 9일
오픈리뷰 1588-5212 예술의전당 (02)580-1300
오픈리뷰 인터파크 옥션 yes24
Directed by David Swan

롯데면세점 페이스북 "좋아요"

오픈 기념해 경품 이벤트

롯데면세점이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최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lottedfs)을 오픈했다.

'여행의 품격, 롯데면세점'을 콘셉트로 쇼핑과 여행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제작됐다. 고객들은 롯데면세점의 세일, 지점별 행사 등의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장근석, 김현중, 슈퍼주니어 등 한류스타의 동영상도 직접 볼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페이스북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14일까지 인기 제품과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고객을 추첨해 '에스티로더 나이트리페어', '몽블랑 남성용 반지갑' 등을 증정한다. 또 한 31일까지 게임 이벤트에 참여하면 가방과 크리스피크림 도넛, 커피 세트 등을 나눠준다.

삼성 vs LG '바람의 전쟁'

나란히 에어컨 신모델 출시…냉방기능 강화·신기술 접목 '승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잇따라 에어컨 신제품을 내놓으며 한겨울 바람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LG전자가 이달 초 세계 최초로 에어컨 본체에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한 휘센 에어컨 새 모델을 내놓았고, 삼성전자는 15일 강력한 냉방 기능을 앞세운 '스마트에어컨 Q900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에어컨 고유의 냉방 기능에 신경 썼다면 LG전자는 신기술을 접목하는 데 집중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에어컨 Q9000'은 LP플레이어를 닮은 3개의 회오리 팬 디자인이 맞바주듯 실내기에서 흡입한 공기를 즉시 찬 공기로 바꿔주는 '바이패스 회오리 바람' 기능을 새로 적용했다.

회오리 팬으로 바람을 모아 멀리 뻗어가게 하는 에어로다이나믹스(항공역학) 기술을 더해 제품의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게 했다.

냉방력을 강화하면서도 초절전 스마트 인버터 기술 적용에 동급의 정속형 스탠드형 에어컨과 비교해 76%의 에너지 절감 효과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오늘(16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출고가는 264만~520만원 선.

LG전자 '휘센 챔피언스타일' / 삼성전자 '스마트에어컨 Q9000'

LG전자가 대표 제품으로 내세운 '휘센 챔피언스타일'은 리모컨 없이 5m 거리에서도 에어컨을 동작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 최고의 무기다. 무더운 여름날 현관문을 열며 '찬바람'을 외치면 '에어컨 켜, 온도 바람 세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상·하 좌·우 4면에서 바람이 나오는 LG전자 고유의 4D냉방 기술은 사람의 수와 활동량 등을 감지하는 센서까지 더한 '액션감지 4D냉방'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됐다.

3월 말까지 신제품 30여 종을 대상으로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출고가는 230만~500만 원대.

/천효승기자 hsleon@metroseoul.co.kr

호텔체인 '베니키아' 인기 쑥쑥

인지도 3년 연속 상승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호텔 체인 '베니키아'의 인지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호텔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베니키아의 인지도가 지난해 17.3%에서 3.7% 증가한 21.0%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진출해 있는 외국계 비즈니스 호텔 체인 '베스트 웨스턴'(20.2%)과 '소피텔'(16.7%)보다 높은 수치이며, 국내 호텔 브랜드 21개 중 11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관광공사 측은 "최근 계속된 불황으로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을 선호하는 국내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베니키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주름다리미' 오앤 링클 프리 특가

CJ오쇼핑 오늘 판매 방송

한경희뷰티의 '오앤(O&)'이 CJ오쇼핑에서 오늘(16일) 오후 1시40분부터 '오앤 링클 프리 2013 CJ오쇼핑 첫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눈가, 목, 팔자 주름을 집중 관리해주는 안티에이징 전문 라인 '주름 다리미 오앤 링클 프리 세트'(에 눈가 주름 엠플 에센스, 팔자 주름 엠플 크림, 넥 퍼밍 에센스, 실키 프라이머 4종)을 추가해 특가(9만9000원)에 선보인다.

또한 방송 중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앤 링클 프리 3종 세트'를 일주일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25일까지 CJ오쇼핑 홈페이지에 상품평을 남기면 '오앤 링클 프리 프리미엄 크림'을 증정한다.

문의 www.HAANbeauty.com

오클락 어어 빈폴까지 로이킴 광고모델 대세

대세는 로이킴!

엠넷 '슈퍼스타K4' 우승자 로이킴이 광고계를 접수했다. 제일모직 빈폴은 바이크 리페어 샵의 메인 모델로 로이킴(사진 왼쪽)과 정준영(오른쪽)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대의 감성과 트렌드를 보여주는 아이콘"이라는 설명이다. CJ오쇼핑 역시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오클락'의 모델로 로이킴과 함께 유승우를 발탁했다. /박지원기자 pjw@

강강술래 한우·갈비 할인 '푸짐'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전화 주문(080-925-9292), 매장을 통해 진행 중인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10만원대 미만의 저가 실속세트 판매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우불고기1호(1.8kg·5만원)와 술래양념갈비1호(1.6대·8만원), 한우양념갈비1호(1대·15만원) 등 최대 64% 할인 판매 중인 전통 인기 메뉴에 대한 주문이 크게 늘었다. 술래실속(술래 1.6대+한우불고기 1.8kg·13만원)과 한우실속(한우 3대+한우불고기 1.8kg·20만원) 등 대표메뉴를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실속형 상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100% 한우로 우려낸 보양식 한우사골곰탕과 영양간식 갈비 및 쇠고기육포 세트도 매출이 40% 이상 뛰어올랐다.

곰탕 대용량 세트(600ml·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l·5팩·10인분) 2만2000원, 쇠고기육포세트(6봉) 2만5200원 등 모두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강강술래는 또한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참여)에 글을 올리면 만용사 추천 도서인 '신달자 시인의 에세이 '엄마와 딸'과 캐나다 국민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의 '빌러어스 그레이스'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휘팍-블루원 회원혜택 공유

보광휘닉스파크가 블루원과 업무 제휴를 통해 양사의 회원 혜택을 공유하기로 했다.

휘닉스파크 회원들은 콘도·골프·워터파크 등을 보유한 블루원의 각종 시설 등을 블루원 리조트 회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골프클럽의 경우 정회원 기준 주중 7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워터파크 40~50%, 부대시설 10%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블루원의 회원들 또한 휘닉스리조트 시설 이용 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어, 회원 요금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가엽 함유 '보헴시가 미니'

KT&G가 세계 최초로 초슬림 담배를 시가엽이 함유된 궐련지로 감싼 '보헴시가 미니(BOHEM CIGAR MINI)'를 출시했다. 원료 잎담배의 20%를 남미산 시가엽을 사용했다.

초슬림 담배이면서 길이도 84mm이어서 국내에서 시판되는 담배 중 가장 작다. 외형은 슬림하지만 쿠바 스타일의 깊은 풍미를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타르 5mg와 1mg 두 종류로 가격은 갑당 2500원.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한 장면

동창회처럼 '반갑다, 추억'

소설로 만나는 '응답하라 1997'은 주연 서인국(윤윤제 역) 정은지(성시원 역)는 물론 은지원 신소율 호야 이시언 송종호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그대로 지면에 담아냈다.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렸던 캐릭터 간 대화들, 추억을 부르는 배경과 소품 설정, 보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에피소드를 섬세한 감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심리와 뒷이야기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경험과 연륜보다는 열정으로 무엇이든 맞서려 했던 1997년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 있다.

또 응칠 열풍에 힘입어 각종 기사와 인터넷 후기를 도배했던 명대사와 명장면을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눈빛과 표정으로 대신했던 공백을 다채로운 감정 묘사로 채워 핵심 사건 속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서른세 살의 마지막 계절을 보내고 있는 부산 광안고 동문들의 동창회에서 시작된다. 동창회 겸 한 커플의 결혼 발표 자리. 고등학교 졸업 15년 차의 30대 청년들은 다른 직업, 다른 일상을 갖고 모인

응답하라 1997
이우정 지음/이우정 원작/21세기북스 펴냄

신드롬 낳은 인기 드라마 명대사 등 소설로 재탄생 각 장마다 명장면QR 담겨

자리에서 열정과 설렘 가득했던 학창 시절을 추억한다. 동창회가 벌어지는 현재와 1997년의 학창 시절을 오가며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퍼즐처럼 풀어간다.

'동창회'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윤제, 태웅, 준희 등 각기 다른 등장인물의 시각으로 그려내고, 각자의 과거 회상과 연결되어 사건이 전개된다. 총 6개의 동창회 파트와 7개의 과거 챕터가 따로, 또 같이 엮여 톡톡 튀는 흐름으로 평가받은 응칠을 재현해 드라마와는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응답하라 1997'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방해하면서 벌어지는 오해나 꼬임도 없다. 나쁜 사람이 없으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보내고, 성인이 돼 다시 만난 동창회 자리, 15년 만의 재회 자리에도 아주 심각한 사람은 없다.

주인공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행복, 슬픔, 갈등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느끼고 극복한다. 그들 속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은 소소하고 담백한 일상이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착한 사람들의 착한 이야기. 그들이 전하는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과 희망은 지금을 이겨내고 견디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행복과 위로를 전할 것이다.

한편 소설 '응답하라 1997'에는 각 장의 도입마다 QR코드가 삽입돼 있다. QR코드를 통해 각 장에 해당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김지영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이민소녀, 하버드법대 종신교수되기까지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
석지영 지음/송연수 옮김/북하우스 펴냄

아시아 여성 최초의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 최고의 여성 법학자. 여기에 아메리칸발레학교, 줄리어드 예비학교, 예일대 학부, 옥스퍼드대 대학원, 하버드 법대 대학원 박사까지. 석지영 교수(41, 사진)의 이력이다.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되고 나서 가장 기쁜 일 중 하나가 "내가 태어난 나라 한국과 다시 관계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석 교수가 한국을 찾았다. 그녀의 삶의 과정과 생각, 열정을 담고 있는 첫 에세이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의 출간 간담회가 15일 서울 홍대 인근 카페에서 열렸다.

석 교수는 "자신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나누고, 자신이 어렵게 얻어낸 몇 가지 원칙을 나누고 싶었다"고 책을 낸 동기를 설명했다.

석 교수의 경험은 다채롭다. 여섯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 청소년기에는 발레, 피아노를 전공했고 예일대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땄다. 문학박사를 딴 후에는 진로를 바꿔 하버드 법대에 진학했다. 이후 법원서기직, 검사직을 통해 현실의 법 세계를 경험한 후 2006년 한국계 최초로 하버드법대 교수에 임용됐다. 4년 만인 2010년 교수단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로 선출됐다.

석 교수를 오늘의 그녀로 만든 원천은 '책 읽기'와 '문·예술에 대한 열정'이다. 그녀는 "책 읽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다. 또 발레, 피아노, 음악, 미술과 건축물, 공연예술 등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도 그녀를 만든 토양이다. 이어 그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발견하라"고 강조한다. "그럴 수 있을 때 모든 것은 좀 더 훌륭해진다"는 것이다.

/김지영기자

새로 나온 책

2033 미래 세계사
버르지니 레송 지음/남윤지·권지현 옮김/휴머니스트 펴냄

앞으로 20년 후로 다가온 2033년의 미래를 지구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예측 가능한 미래를 펼쳐 주는 세계사이자 미래 전망 보고서다. 인류가 봉착하게 될 거대한 미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지표들은 인구학적 분석과 그 의미가 될 요한 정책 당국자를 비롯해 국제 문제 연구원, 학생, 도시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환경 시민단체,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더할 수 없이 귀중한 내용을 제공한다.

문명의 배꼽, 그리스-박경철 그리스 기행1
박경철 지음/리더스북 펴냄

시골 의사 박경철의 그리스 기행 시리즈 첫 번째 책이다. 근대 이후 세계의 패권을 움켜쥔 서구 문명의 기원인 그리스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문명을 순례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다. 첫 출발지는 펠로폰네소스다. 저자는 "펠로폰네소스가 그리스 문명의 어머니이자 서구 문명의 자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가 자랑스러워하는 문명의 뿌리, 이제 헬라스의 뿌리이자 헬레네의 고향 펠로폰네소스로 들어간다"고 표현했다.

열한 살에 읽는 삼국지-전5권
김우영 지음/좌방새 펴냄

'열한 살에 읽는 삼국지'는 방대한 삼국지를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또 책 뒤에는 '하루에 한 번 삶의 지혜를 깨우치는 고사성어' 편을 실어서 앞에서 만화로 풀어낸 삼국지 이야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를 원문과 뜻풀이로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다. '삼국지 고사성어'를 통해 삼국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옛 영웅들의 지혜와 기개를 배우는 동시에 한문 학습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불혹, 세상에 혹하지 아니하리라
신정근 지음/21세기북스 펴냄

이 책은 마흔 이후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야 할까? 를 고민하는 40대 독자들에게 삶의 지혜 또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한다.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을 통해 40대라는 인생의 굽잇길에서 되새겨야 할 삶과 일의 의미를 전해준 신정근 교수는 "사십을 보내면서 오십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서 나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한다.

New 농구교본 개인전술
히다카 테쓰로 지음/박승희 옮김/이병진 감수/삼호미디어 펴냄

현대 농구는 각 선수들이 모두 기술을 익히 패스를 통해 어디서든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스타일이 정석으로 자리 잡았다. 책에는 개인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181가지의 연습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려 있다. 탭세한 풋워크와 핸드워크를 위한 기본자세, 슛과 드리블, 리바운드, 패스 등을 위한 훈련, 실전 대비를 위한 1대1 훈련이 구성돼 있고, 체간 단련법과 코디네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실용적으로 담겼다.

프라하의 묘지 1-2
움베르토 에코 지음/이세욱 옮김/열린책들 펴냄

이 책은 거짓의 메커니즘, 편찬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탐구하여 온 에코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해온 에코가 자신의 연구와 실천을 집약한 소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함도, 날조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시모니니라는 인물을 내세워 19세기 유럽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음모론이 어떻게 생산되고 퍼져나가는지를 그렸다.

청호흡 선법- 나를 찾아가는 철와 고 열린 호흡법
수산오도 지음/판미동스 펴냄

이 책의 저자는 그동안 수련을 하면서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현대 과학과 의학적 전문을 총해 공부해 왔다. 이를 통해 호흡도 과학적이어야 하는 이유, 왜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인지, 호흡보다 먼저 해야 할 이완의 중요성, 장치가 만으로 부처가 되는 비결, 자연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들숨과 날숨에도 각각 다른 호흡법이 필요한 이유 등 참된 호흡을 위한 수행 비결을 의학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star bag

대만·싱가포르 차트 1위

소녀시대가 대만·싱가포르 주간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했다.

4집 '아이 갓 어 보이'는 대만의 파이브 뮤직 한일 음악 차트에서 2주 연속(2012년 12월 28일~2013년 1월 10일)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지-뮤직 아시아 차트(4~10일), CCR 아시아 음악 차트(1~7일), 싱가포르 HMV의 한일 음악 차트(7~13일)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섹시 창법 살린 신곡 발표

미국의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6년6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그는 16일 새 싱글 '슈트 앤 타이'를 발매한다.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섹시한 보컬이 돋보이는 곡으로, 팀버레이크와 손카터 등이 공동 프로듀싱했으며 힙합 스타 제이지가 피처링했다. 그는 2006년 2집 '퓨처섹스/러브사운즈' 이후 연기 활동에 전념해왔다.

'넬리와 …' 2편도 더빙

KBS2 '개그콘서트'의 '**용감한 녀석들**' 팀이 3D 애니메이션 '넬리와 용감한 녀석들'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더빙에 나선다.

15일 수입사에 따르면 2편에서 정태호와 박성광은 말하는 앵무새와 사고뭉치 원숭이 역을 맡고, 신보라와 양선일은 여왕 코뱅카 졸병 대장의 목소리를 연기한다. 다음달 21일 개봉.

'더 바이러스' 주인공 발탁

엄기준이 OCN 드라마 '더 바이러스'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극중 특수감염병 위기대책반을 이끄는 이명현 반장을 연기할 엄기준은 "다양한 감정과 더불어 액션까지 소화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매력을 어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변종 바이러스의 위험을 막기 위한 사투를 담은 10부작 미스터리 스릴러로 3월 첫 방송된다.

'장르 포식'은 장점이자 단점

최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타워'의 김지훈(42) 감독에게는 독특한 이력이 따라다닌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전남 목포와 광주가 무대인 영화('목포는 항구다' '화려한 휴가')를 두 편이나 연출했다. 또 100억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형 괴수·재난 블록버스터에 두 번 연속 도전하면서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있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김 감독은 "다양한 장르와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장점이자 단점 이라며 "남들은 다워 가 성공해 좋겠다고 하지만 전작 '7광구'의 실패를 떠올리면 아직은 웃을 여기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 이젠 웃고 다니시죠. '타워'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웃으면 사람들이 "'7광구'를 잊은 모양이네"라며 욕할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조금 안심할 듯싶어요. ('타워'는 14일 손익분기점인 전국 관객 450만 명을 돌파했다.)

- 프로덕션 측면에서 이 영화의 장점은 제작비의 효과적인 운용이라고 봅니다. 돈을 쓸 데와 쓰지 말아야 할 데를 잘 구분했다고나 할까요.

정말 가뜬 좋은 칭찬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순 제작비는 200억원이었어요.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몸집을 줄여 마케팅비를 포함해 총 제작비 140억원으로 낮췄어요. 1년 넘게 연출팀과 컴퓨터 그래픽(CG)팀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고민한 결과죠.

- CG로 처리하기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궁금합니다

CG로 손질한 컷 수가 역대 국내 영화론 최다인 무려 1700여 개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장면이 실사이고 CG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쌍둥이 건물을 보여주는 대낮 장면이 의외로 가장 어려웠어요. 아무리 움직임이 많아도 밤 장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CG로 처리하기 쉬운 반면, 낮 장면은 그렇지 않아서죠. CG팀에게 처음 시나리오와 달리 "건물을 두 채로 가자"고 요구했더니 거의 무릎을 꿇고 사정하더군요. "우리 죽일 일 있느냐"면서요.

- 부유층들이 주로 사는 최신식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감독 개인의 비판적인 시선도 은근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시작은 중3 때 대구에서 올라와 63빌딩을 처음 보고 느꼈던 놀라움에서였어요. 재난의 소재로 불을 사용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공간을 찾다 보니 주상복합건물이었죠. 물론 갈수록 비현실화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살기 위한 집'이 아닌 '사기 위한 집', '과시하기 위한 집'으로 바꿔버린 주거 문화를 꼬집기 위한 의도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공짜로 주상복합건물 한 채를 준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하하하.

- 손예진씨는 가장 의외의 캐스팅이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함께하는 연기를 잘 소화해내더군요.

예진씨 소속사가 들으면 정말 좋아하겠는걸요. '타워링'을 벤치마킹한 캐릭터를 기운데 특히나 예진씨가 연기한 식당 매니저 서윤희 역은 출연 분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전형적으로 보이는 탓에 톱 여배우들이라면 다소 꺼려할 만했죠. 함께 일해보니 정말 연기폭이 넓더라고요. 워낙 몸이 유연해 기대 이상으로 몸 쓰는 연기도 잘하고요. 15년 전 조감독일 때 오디션에 참가한 예진씨를 처음 보고 최고의 배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예상이 맞아떨어져 너무 뿌듯했습니다.

-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대학(한양대 연극영화과) 시절 친구들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나 레오 카락스 같은 예술영화 작가들을 좋아할 때 저는 스필버그를 좋아했어요. 당시 영화학도로서는 욕 먹을 짓이었죠. 하하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속 창작가와 대중이 함께 즐기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7광구'와 '타워'로 겪고 얻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살려 대작으로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달라져야 할지는 이제 고민 중입니다. 분명한 건 다시 내공을 다져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매를디운 방법이'를 위해서라도 너무 오래 쉬면 안되겠지만, 당분간은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기려 합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450만 돌파 '타워' 감독

김/지/훈

CG손질 컷트수 1700개 '국내 최다'
나중에는 실사 장면과 헷갈릴 정도

손예진은 연기 폭 정말 넓더라고요
난 스필버그 팬… 이젠 내공 다질때

ASUS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ASUS VivoBook

터치 · 새로운 울트라북™의 기준

스타일리시 모빌리티

얇고 가벼운 무게의 메탈릭 디자인과 터치환경에 최적화된 멀티 터치 스크린

강력한 성능

최적화된 인텔® 코어™ 3 프로세서부터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까지 지원하는 뛰어난 성능

2 Second Instant On

놀라운 사운드

실감 넘치는 서나운드 기능의 소닉마스터 오디오 기술의 향상된 사운드

VivoBook S400

세계에서 가장 고장 안나는 노트북, ASUS 노트북

미국 최대 A/S기업인 스퀘어트레이드는 30,000대 이상을 제조하는 9개의 노트북 브랜드 1000대의 노트북의 3년 후 고장률을 조사하였습니다. 3년 이내의 고장률에서 ASUS의 노트북이 16% 이하의 고장률을 보이며 안정성 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3년 간 노트북 제조업체 고장율 순위

지금 ASUS 페이스북 'www.facebook.com/asuskorea'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세요!

자극 '짱' 토크클럽 배우들 시청률 '꽝'

MBC 토크클럽 배우들 이 첫 방송에서 배우들의 자극적인 고백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14일 첫 방송에서는 막내 출연진들이 파란의 중심에 섰다 헬로비 미르의 친누나인 고은아는 "동생과 근친상간 루머 때문에 힘들었다"고 털어놨으며 신소율은 "연기를 하고 싶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 직후부터 다음 날까지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2위를 다투며 이슈몰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본 방송은 4.1%(닐슨 코리아)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다

토크쇼 게스트로서는 부족할 없는 스타들이지만 진행자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출연자들조차 녹화 전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애매한 콘셉트도 시청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는 부족했다

반면 동시간대 SBS 토크쇼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는 김래원을 게스트로 초대해 배우들 을 3.2%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권보람기자 kwon@

비 "전방 가고 싶지만…"

독후감·반성문 제출 7일의 근신처분 끝나 "남은 군생활 충실히"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1주일간의 근신 처분을 마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5일 "정지훈 상병은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추천한 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했으며 반성문도 썼다. 오늘로 7일간의 근신 처분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비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무협문으로 억만장자가 된 중권 천재 조던 벨포트의 자전적 소설인 '월가의 늑대' 등 2권을 읽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다른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처신을 잘못한 것 때문에 (부대) 전체에 누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군 생활 기간(7개월)에 자숙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반성문에 적었다

그러나 비는 반성문에서 억울한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홍보지원단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일로 지금까지의 활동은 무시당하고 군 생활 기간 연애를 동어니 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마음 같아서는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주어진 보직인 홍보지원병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공무외출을 나가 배우 김태희를 사적으로 만나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소속 부대에서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권상우·수애 열연 '야왕' 산뜻한 출발

권상우 수애의 열연에 힘입은 SBS 월화극 '야왕'이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야왕'이 14일 첫 방송에서 8.0%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고정 시청층을 확보한 KBS2 '학교 2013'과 MBC '마의'는 각각 1.3, 0.2%포인트 하락했다

박인권 화백의 원작을 한 뿌리에 둔 만큼 전체적으로 '대물'과 비자 뷰를 일으켰지만 단아함 속에 카리스마를 감춘 수애와 '대물'의 히도야 역으로 호평을 받았던 권상우의 물에 익은 듯한 호연이 이목을 잡아끌었다

영부인과 검사로 대립각을 세운 다해(수애)와 하류(권상우)의 모습에 이어 이들의 청년 시절과 유년기를 플래시 백 기법으로 빠르게 훑는 'LTE급 전개'도 돋보였다 /전효순기자

신선한 캐릭터 탄탄한 연출력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영웅 눈길

수사과정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전개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ww metroseoul co kr

■ 잭 리처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부지런한 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톰 크루즈다. 못해도 일 년에 두 편꼴로 미구(?) 주연작들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올해도 4월 공개 예정인 SF 대작 '오블리비언'과 현재 제작 중인 '올 유 니드 이즈 킬' 등 두 편 이상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17일 국내에서 개봉될 '잭 리처'는 지천명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정력적인 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6발의 총성과 함께 5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다. 체포된 용의자는 "잭 리처를 데려오라"란 내용의 메시지만 남기고 함께 이송되던 범죄자들에게 폭행당해 혼수상태에 빠진다.

미국 전역을 정처 없이 떠돌던 전직 군 수사관 잭 리처(톰 크루즈)는 이 소식을 듣고 홀연히 나타나 검사장의 딸인 변호사 헬렌(로자먼드 파이크)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베스트셀러 작가 리 차일드의 하드보일드 소설 '잭 리처' 시리즈 중 '원샷'을 극화한 이 영화는 디지털 시대를 역행한다. 고전 웨스턴 히어로 '셰인'처럼 모든 과거가 베일에 가린 주인공은 자가용은 물론 휴대전화도 없다. 발로 뛰거나 남의 차를 빌려 쓰며 자신의 직감과 본능에만 의지하는 '현대판' 매우 아날로그적인 인물이다. 신선하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다.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촘촘한 연출력도 음미할 만하다. '왜?'로 출발해 '누가?'로 방향을 바꾼 뒤 다시 '왜?'로 돌아오는 수사 과정이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원작 소설 팬들에겐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다.

재즈광에 신장 2m의 거구로 묘사된 원작 속 캐릭터가 마초적인 성격만 빼곤 대부분 달라졌다. 작은 키의 크루즈가 주연과 제작을 겸하기로 하면서 바뀐 부분인 탓다. 원작자와 감독으로선 영화화를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복서배우 이시영 주먹 너무 아프더라"

군살 없이 깨끗한 몸매. 그러나 불끈 쥔 주먹이 예사롭지 않다. 부은 오날의 여배우 이 복서로 딕숙했던 이시영(가운데)이 오랜간에 여름다운 여배우로 돌아왔다. 15일 열린 새 영화 '남자사용설명서' 제작발표회에서다. 이시영은 상대 배우 오정세(오른쪽)가 "이시영에게 맞는 장면에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너무 아팠다"며 촬영 당시의 고충을 털어놓자 "맞는 장면을 아주 좋아했다. 더 세게 때려달라고 요청해 신실하게 때렸다"고 화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오랜 슬로너 CF 감독(이시영)이 연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한류스타(오정세)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한창이기자 hsychang@

4색 '금난새 페스티벌' 열린다

마에스트로 금난새가 대중적인 무대로 관객을 찾는다.

금난새는 30일~다음달 2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뮤지컬·오페라·재즈, 영화와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는 '금난새 페스티벌'을 연다. 그가 전체 공연의 지휘와 해설을 하고, 충무아트홀 상주 단체인 유라시안 필하모닉이 연주를 맡는다.

30일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박은태·김소현·손준호가 '오페라의 유령'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의 뮤지컬 넘버를 선사하고 31일에는 소프라노 김성혜와 이지은, 테너 이재욱이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다음달 1일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송준서와 그가 이끄는 재즈트리오가 출연해 거쉰의 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2일 마지막 공연은 영화 음악과 함께 발레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들려준다. 문의 02)2230-6601

/김민준기자 mdkim@

강호동 복귀작 '달빛프린스'는 북토크 형식

22일 첫 방송될 강호동의 KBS 복귀작 '달빛프린스'가 베일을 벗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초대 손님이 직접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북 토크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호동·동방신기 최강창민·용감한 형제·정재형·탁재훈 등 다섯 명의 MC들이 시즌기·퀴테크 등 그 주에 선정된 책의 키워드에 대한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며, 토크를 통해 축적된 금액 일부는 초대 손님이 선정한 단체에 기부된다. 첫 녹화는 배우 이서진이 참석한 가운데 황석영의 소설 '개밥바라기별'을 주제로 12일 진행됐다.

/탁진현기자 tak0427@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홍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9 What time is it? 시간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평으로 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What time is it?
B 5시 조금 지났어요.
A Your watch must be fast. Look, it's 4:55.
B Well, 우리는 제시간에 도착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A Yes, we won't be late.

정답 It's a few minutes after 5. / we'll be on time, won't we?

생생영어팁

▶ Not ~ until...
~까지는 ~하지 않아요.

The restaurant doesn't open until 7.을 직역하면 '그 식당은 7시 전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죠. 이렇게 문장에서 not ~ until...이 함께 쓰이면 '…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시가 되어야 ~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e restaurant doesn't open until 7.은 '그 식당은 7시가 되어야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예문을 중심으로 많이 연습해보세요.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동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access	통 접근하다, 접속하다 명 접근, 입장	access your online bank account 당신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접속하다
allow	통 허락하다 allowance 명 허용량, 수당	allow visitors to take pictures 방문자들에게 사진 촬영을 허락하다
approve	통 승인하다 approval 명 승인	approve the plan 그 계획을 승인하다
differ	통 다르다 difference 명 차이	Their opinions differ regarding the issue. 그 사안에 대해 그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discontinue	통 (생산 등을) 중단하다	discontinue a service 서비스를 중단하다
enter	통 들어가다, 진출하다 entrance 명 입장, 입구	enter the Asian market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5. Propose a solution

음성 메시지 듣고 이해하기

I bought a book through your Web site last week.

음성 메시지에서 전화 건 사람의 인사 및 본인 소개 후에는,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한 상황 설명이 시작된다. '무엇을(명사), 언제(시간 표현), 어디서(장소 표현), 어떻게(동사)'와 같이 각각의 사항을 잘 듣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경 상황을 잘 파악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건 및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I **ordered a cake** from your bakery.
I **reserved a room** at your hotel.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I am **in charge of promoting** the new item.
I am **organizing the event** for new employees.

그 외의 상황 I **run a restaurant** in Riverton City.
I am **going on a business trip** to Washington.

2013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이 15일 유니폼을 받고 출정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류중일호' 닻 올렸다

WBC 유니폼 받고 출정식… "이 없으면 잇몸으로 4강"

3월 열리는 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류중일호'가 닻을 올렸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은 15일 열린 WBC 출정식에서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승엽(삼성)·김태균(한화)·윤석민(KIA)을 필두로 후보 선수 28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대표팀은 좌완 트리오 류현진·김광현·봉중근이 빠져 마운드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희수·정대현·오승환으로 이어지는 불펜진과 이승엽·이대호·김태균 등이 이끄는 화력을 앞세워 4강 이상의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미국 헨본 광 사이판 등으로 소속팀 스프링캠프를 떠나는 대표 후보 선수들이 WBC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 롤링스사가 제작한 공인구를 나눠줬다.

태극전사들은 소속팀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다음달 11일 귀국해 서울에서 모인다. 이후 대표팀은 WBC 체제로 전환해 12~25일 대만 자이현 도류구장에서 합숙하고 연습경기로 실전 감각을 키운다.

본선 1라운드는 3월 2일부터 대만 타이중에서 열린다. 한국은 대만, 호주, 네덜란드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프로야구단 해외로! 스프링캠프 돌입

프로야구 9개 구단들이 해외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올해 정규시즌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새롭게 합류한 NC 다이노스가 15일 미국 애리조나로 동계 훈련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각 팀은 대부분 40일 이상 해외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할 예정이다.

미국을 거쳐 대만으로 향하는 NC를 제외한 다른 8개 팀은 모두 2월 중순 무렵 일본에서 만난다. 삼성·SK·KIA·LG·한화·넥센이 오키나와 리그를 펼치고 롯데는 가고시마, 두산은 미야자키에서 정규시즌에 앞서 탐색전을 치른다.

삼성은 20일부터 괌과 오키나와에서 생존 싸움을 벌인다. 오승환·장원삼 등 일부 선수들이 미리 괌으로 떠나 몸을 만들고 있고, 20일 나머지 선수들이 합류해 한국시리즈 3연패를 향해 달린다.

LG는 8일 봉중근 등 6명의 재활조를 먼저 사이판으로 보냈고, 20일에 전 선수단이 합류할 예정이다.

한화는 13일 투·포수조가 미리 오키나와로 떠났고, 20일 야수조가 합류한다. 두산은 20일 미야자키로, KIA는 20일 미국 애리조나로 출발한다. /김민준기자

올해 4강 가자! LG 선수들이 15일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연습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새 시즌을 대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최향남 "노 파워" 해프닝 이젠 없어요

ML 마운드도 통역 허용

풍운아 최향남(42·KIA·사진)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메이저리그를 여러 차례 노크했던 그는 2006년 트리플A팀 버팔로 바이슨스에서 활약했을 당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어느 날 경기 중 구위가 갑자기 떨어져 마운드에 올라온 감독을 향해 어깨에 힘이 빠졌다는 의미로 "노 파워"를 외치며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없이 계속 던질 수 있다'는 '노 프라블럼'으로 잘못 알아들은 감독은 그를 마운드에 그대로 방치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발생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올해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데뷔를 준비하는 류현진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하다.

미국 ESPN은 15일 "올해부터 외국인 투수가 마운드에 선 상황에서 감독이나 투수코치가 마운드에 오를 때 통역을 대동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고 보도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투수를 도우려는 조처로 30개 구단 구단주들은 지난주 규정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외국인 투수가 던질 때 통역이 자연스럽게 마운드에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감독이나 코치만 마운드에 올라 투수 컨디션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류현진은 경기 중 마운드에서 통역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의사를 주고받을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연안 디미트로프 완패 샤라포바 "할 말 없다"

열애설에 휩싸인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26·러시아·사진)가 연인으로 지목된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2·불가리아)의 패배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디미트로프는 1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남자단식 1회전에서 쥘리앵 베네토(프랑스)에게 0-3(4-6, 2-6, 4-6)으로 완패했다.

경기 후 미국 ESPN은 샤라포바에게 "디미트로프가 0-3으로 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샤라포바는 당황한 듯 큰 웃음을 터뜨리며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계속 재근하자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이 소식을 들은 디미트로프는 "사람들은 가십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 사생활 침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샤라포바는 여자단식 1회전에서 올가 푸츠코바(러시아)를 55분 만에 2-0(6-0, 6-0)으로 가볍게 완파했다. 남자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도 폴 앙리 마티외(60위·프랑스)를 3-0(6-2, 6-4, 7-5)으로 꺾고 2회전에 안착했다. /김민준기자

ML 선수 몸값 3조원 훌쩍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개막전 로스터의 연봉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약 3조1700억원)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야후 스포츠는 15일 스토브리그 기간 연봉 계약과 연봉 조정 신청 예상치 등을 종합해 올해 구단별 개막전 25인 로스터의 몸값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연봉 총액은 지난해 29억4000만 달러에서 7% 상승한 30억7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거액을 투자해 잭 그레인키와 류현진을 영입한 LA 다저스가 지난해보다 무려 124%나 오른 2억1300만 달러(약 2250억원)로 선수단 몸값에서 단연 1위로 평가됐다. /김민준기자